농어촌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이창우

전북발전연구원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A Study on the Depopulation Village Improved Settlement Environment

Lee, Chang-Woo

Researcher Fellow,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ver-de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village unit in rural and fishery region. In addition, improvement in rura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wish to raise.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reasing depopulation village, and the poor living environment for the depopulation of villages. Second, depopulation village characterize the type of hardware and software is required. Finally, this four type of policy is needed to fit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further improve the depopulation village environment, improve satisfaction in that you can plan the basis for an effective strategy can be. Ongoing analysis of forward linkages and establish future policy measures are needed.

Key words : Depopulation village, Settlement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Rural Environment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과소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농어촌인구의 감소는 1970년대 이르러 급속히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었다.

그 동안 경제성장의 효과가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개선 효과가 적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악화와 도농간 환경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활력 저하 그리고, 과소화·공동화 등에 따른 침체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농간 격차 심화와 농어촌의 활력 감소는 도시 집중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에는 농어촌경제의 침체를 장기화하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그 동안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 생활환경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생활 및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책적으로도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최윤지, 2010).

이렇게 심화된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인구 중심으로 농어촌을 떠나게 된 점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 남아있던 인구가 노령화되고 젊은 세대로의 농가 승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20호 미만 과소화마을은 2005년 2,408호(5.7%)에서 2010년 3,091호(8.5%)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농어촌 마을의 급속한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 사회기반붕괴가 더 심화되기 이전에 과소화 수준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응방안은 먼저 마을 과소화가 급속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

Corresponding Author : Lee, Chang-Woo

Tel : 063-280-7134

E-mail : urban@daum.net

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입지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즉, 농어촌 마을 쇠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롯하여 소멸에 이르고 있는 마을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어떤 마을에서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마을 단위의 심도 있는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 마을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류된 각 유형별 과소화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소화 마을의 축소 및 억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어촌 과소화마을 관련 선행연구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소화 마을의 인구, 가구, 주택노후도 등의 자료 분석으로 마을 유형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6개 시도 전역으로 포함하고 시간적 범위는 2005년,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농어촌마을 과소화의 개념 및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지역별 농어촌 과소화마을의 현황분석과 특성에 따른 유형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소화마을 유형특성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농어촌마을의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소마을 또는 소멸예상 마을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정비대상의 선정 및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과소화마을

1) 과소화마을 개념

마을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연접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범위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마을’은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들로 정의할 수 있다.

과소는 사전적으로는 어느 지역의 인구 따위가 지나치게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밀과 상대적인 어휘이다. 의미상으로 보면 과밀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일정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다른 지역보다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결과론적 개념이다.(정기환외3, 1999).

과소는 결과론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과소지역은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감소한 지역이다. 따라서 과소지역의 문제는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감소한 지역이다. 즉, 과소지역의 문제는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 또는 이로 인해 타 지역 또는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역사회 불이익의 문제가 된다.

이에 비해 과소화는 진행형의 개념이다. 즉, 한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과도하게 감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¹⁾.

과소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조작적이며, 통상 정량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인구감소율만을 기준으로 과소지역으로 분류(오홍석, 1980; 이한방)하거나 인구 감소율, 고령자비율, 청년층(15~29세)의 인구비율, 재정력 지수 등을 조합(김두철, 윤근삼·송정기, 정기환, 일본 과소화관련법 등)하여 과소지역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Table 1. Indicators of depopulation village

구분	기준지표	전체비중
김두철 (1997)	인구감소율, 노년인구비율,인구밀도	전체 면적의 61% (1990년)
오홍석 (1992)	인구감소율 (전국 읍면 대상)	면지역은 51%, 읍지역 29% 인구감소
윤근삼· 송정기 (1994)	인구, 산업, 사회, 문화, 행재정 등 종합지표	18개 사군 중 12개가 과소지역
정기환 외 (1999)	단일지표(인구감소율), 복합지표(인구감소율,인 구밀도,65세이상비율), 종합지표(인구감소율,인 구밀도,가구원수,65세이 상,15세미만비율)로 구분	단일지표:57.4%, 복합지표:56.4% 종합지표:60.4%
성주인 (2012)	단일지표(가구수)	20호미만
일본 과소지역	인구감소율, 고령자비율, 재정력지수	국토면적의 약 50%

본 연구에서는 과소마을은 과소화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마을의 규모와 밀도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선행연구와 통일성을 위해서 20호 미만의 마을을 과소화마을로 분류하였다.

2) 과소화 원인 및 문제점

과소화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소화 지역의 문제는 일정기간에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농어촌인구의 노령화, 농어촌인구의 생물학적 균형 상실, 지역사회의 활력 상실, 지역경제의 위축, 농지와 산림자원의 유향화, 지역사회의 상대적 낙후, 이농 등 농어촌지역사회의 균형상태가 깨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구조이다.

과소화의 문제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 이외에 인구의 질적 구성이 매우 취약해진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과소화지역은 30~40대의 생산성 높은 인구 구성비가 낮아져 유년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과소화지역의 인구감소 속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과소화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높아져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게 된다.

과소화지역은 2·3차 산업이 매우 취약하고 사업체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도 매우 낮아서 농업소득이 일반지역에 비해 낮다. 소득도 부족하지만 젊은이들이 마땅히 취업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농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과소화는 더욱 진행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소득이 낮고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젊은 인구가 계속 떠나서 적정 수준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상점, 시장, 학교, 약국, 병·의원,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시설의 유지도 어렵게 된다. 공공 시설들이 축소 또는 소멸되어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일본의 한계마을

1) 한계마을 개념

일본은 1965년 이후 농어촌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여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1970년부터 한시법으로 ‘과소지역

대책법’을 3차례에 걸쳐 제정하여 농어촌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생활환경정비 등을 위한 특별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0년도에는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과 생활환경 정비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고용 증대 및 지역격차를 시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이처럼 일본은 농어촌의 과소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계마을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Japan's depopulation village

명칭	정의	내용
생존 마을	55세 미만 인구비율 50%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상태
준한계 마을	5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한계마을의 예비군이 되어있는 상태
한계 마을	6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소멸 마을	인구 0	한때 주민들이 존재했지만, 완전히 무주화되어 말 그대로 마을이 소멸된 상태

자료: 농촌 정주기반 실태와 개선과제, 농촌특별대책위원회, 2009

“한계마을”이라는 용어는 과소화·노령화의 진행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태가 된 마을로서 이러한 마을의 자치생활, 도로의 관리, 관혼상제 등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급속하게 쇠약 해버려, 곧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한계”로 표현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자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태를 “한계마을” 이라고 한다. 한계마을 이전단계의 상태는 “준한계 마을”로 표현하고, 5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또한, 한계마을 단계를 넘어선 마을은 “초한계 마을” 에서 “소멸 마을”로 이행한다.

2) 한계마을 시사점

기존의 소규모 마을과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 정책방안역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과소화마을은 정주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과소화 진행이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과 같이 우리 역시 과소화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과소화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고용 증대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 관련연구 동향

본 연구는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 전략을 모색하는 기초 연구이다. 관련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박공주 외(2006)는 주거생활, 건강상태 등의 6개 요인에 대한 농어촌생활 만족도에 따른 영향요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채성주(2012)는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촉진을 위한 전략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소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정기환 외(1999), 최혁재 외(2010), 김정섭(2011), 성주인(2012) 등이 있다. 정기환 외(1999)는 과소화 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과소화 지역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혁재 외(2010)는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을 하였고, 일본의 전원정비사업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섭(2011)은 2000년 이후에 추진된 농어촌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주인(2012)은 농촌 마을의 과소화와 공동화, 도시민의 정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마을의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마을 단위 공동시설 설치에 초점을 둔 마을개발사업들의 내용 재정비가 필요하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점 추진 및 관련 법 제 개정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기환 외(1999)는 과소화 지역을 산간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형별 과소화 지역의 활성화 대책으로써 농업, 취업,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고, 농촌 정주환경 정비를 위해서 법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Table 3.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ural villages

구 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과소화와 공동화, 도시민의 정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 방안 모색 마을단위 공동시설 설치에 초점을 둔 마을개발사업 내용 재정비 필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점 추진 및 관련 법 제 개정 모색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이후 추진된 농촌 지역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 등의 성과분석
최혁재 외, 국토연구원 (2010)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사업과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일본의 전원정비사업을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방향 및 대안 마련
정기환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화 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제점 검토 과소화 지역의 활성화 대책, 산업·지역사회·법 및 제도 개선 검토

2) 연구의 차별성

기존 관련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농어촌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과소화마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과소화 마을의 정주여건과 관련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문제는 인구유출억제와 유입확대를 통해서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앞선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과소화마을의 현황 및 구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과소화마을의 특성별 분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농어촌 과소화마을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를 단순히 지역적인 측면이 아닌 마을의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를 통해서 유형

별 차별화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과소화마을 현황

1. 과소화마을 현황 및 변화

농어촌 인구는 2010년 875만 8천명으로 2005년(876.4만 명)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인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세는 약화되고 있으나, 마을 단위(읍·면의 행정리 기준)로 집계하면 인구의 과소화·공동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에 2,048개(5.7%)로 집계된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의 수는 2010년 총 3,901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36,496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0개 이상의 과소화마을이 증가된 것이다.

Table 4. The proportion of rural villages by size change
(Unit, %)

구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합계
2005년	2,048 (5.7)	17,780 (49.3)	8,174 (22.7)	3,253 (9.0)	4,786 (13.3)	36,041 (100.0)
2010년	3,091 (8.5)	19,281 (52.8)	7,291 (20.0)	2,525 (6.9)	4,308 (11.8)	36,49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005년에는 과소화마을이 한 개 이상 분포하는 읍·면이 전체 읍·면 중 약 47%인 661개였다. 그런데 2010년에는 전체의 63%인 884개 읍·면에 과소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Table 5. Depopulation village population status
(less than 20 families) (Unit, %)

구분	도농복합시 지역			군 지역			전체
	읍	면	소계	읍	면	소계	
2005년	59 (1.9)	639 (5.6)	698 (4.8)	111 (2.5)	1,239 (7.3)	1,350 (6.3)	2,048 (5.7)
2010년	99 (3.3)	879 (8.4)	978 (7.2)	286 (5.5)	1,827 (10.3)	2,113 (9.2)	3,091 (8.5)

주: ()안은 해당 지역 전체 마을 수 대비 과소화 마을 수 비중
자료: 성주인·채종현,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

또한 지역 입지 여건에 따라 농어촌의 과소화·공동화

정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과소화 마을 중 59.1%인 1,827개는 군부의 면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을 중 10.3%가 과소화 마을로 분류되는 등 다른 읍이나 도농복합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공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Table 6.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depopulation of the village population
(Unit, %)

구분	2005년	2010년
광역시	15 (1.6)	60 (6.0)
경기도	82 (2.1)	148 (3.7)
강원도	87 (4.0)	114 (5.2)
충청북도	164 (5.8)	258 (8.9)
충청남도	106 (2.4)	158 (3.5)
전라북도	714 (14.1)	1,027 (20.1)
전라남도	505 (7.7)	780 (11.7)
경상북도	161 (3.1)	223 (4.3)
경상남도	212 (4.4)	322 (6.8)
제주특별자치도	2 (1.2)	1 (0.6)
전체	2,048 (5.7)	3,091 (8.5)

주: ()안은 시도별 마을 수 대비 과소화마을 수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성주인·채종현,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

과소화 마을이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ure 1. Changes in the depopulation of the village

자료: 성주인·채종현,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순으로 과소화 마을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전체 농어촌 마을 중 20.1%가 과소화 마을로 집계되어 농어촌의 과소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주거여건

지역별 주거여건을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역별 주거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대표적인 노후주택비율과 노령인구비율을 통하여 지역의 주거여건을 분석해 보았다.

Table 7. Retirement homes and an aging population
(Yr.2010)

구분	노후주택			노령인구		
	단독주택	79년이전	비율	전체인구	65세이상	비율
전국	3,797,112	1,163,435	30.64	47,990,761	5,424,667	11.30
서울	397,103	101,683	25.61	9,631,482	928,956	9.64
부산	234,001	83,653	35.75	3,393,191	397,130	11.70
대구	160,011	42,662	26.66	2,431,774	251,516	10.34
인천	100,659	30,881	30.68	2,632,035	232,199	8.82
광주	88,215	28,924	32.79	1,466,143	133,137	9.08
대전	78,985	22,780	28.84	1,490,158	131,015	8.79
울산	60,697	12,659	20.86	1,071,673	75,113	7.01
경기	475,769	89,259	18.76	11,196,053	998,567	8.92
강원	207,822	69,258	33.33	1,463,650	226,411	15.47
충북	188,891	55,789	29.54	1,495,984	207,959	13.90
충남	296,056	93,731	31.66	2,000,473	310,481	15.52
전북	262,872	91,767	34.91	1,766,044	289,584	16.40
전남	368,567	149,811	40.65	1,728,749	352,960	20.42
경북	424,441	153,863	36.25	2,575,370	430,483	16.72
경남	377,242	113,185	30.00	3,119,571	391,348	12.54
제주	75,781	23,530	31.05	528,411	67,808	12.83

노후주택과 노령인구 비율은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후주택의 기준은 30년 이상된 주택, 노령인구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른 연구와 통일성을 가진 기준으로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노후주택 및 노령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40.65%), 경북(36.25%), 부산(35.75%)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령인구 비율은 전남(20.42%), 경북(16.72%), 전북(16.40%) 등이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마을이 지속적으로 과소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유입되고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정책만이 단기간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노후주택비율〉

〈노령화비율〉

Figure 2. Retirement homes and an aging population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0)

인구변화 패턴을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공간 두드러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행정구역에 따라 동·읍·면으로 구분하여 1995~2010년 동안의 인구변화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동부의 인구는 12.5%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면부의 인구는 1995년 6,080,962명에서 2010년 4,478,173명으로 -26.4%의 감소율을 보여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3. 과소화마을 유형화 기준

농어촌 마을의 특성을 소프트웨어적인 여건과 하드웨어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마을의 특성을 구분하고자 한다. 마을의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으로는 마을조직,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을구성원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마을구성원들이 활동적인지 아니면 활동할 여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노령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마을의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인구 50% 이상	65세 인구 50% 이하
노후주택 50% 이상	A 유형 • 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이 부족함 •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노후됨	C 유형 • 사업 추진을 위한 사람들이 있음 •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노후됨
노후주택 50% 이하	B 유형 • 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이 부족함 •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함	D 유형 • 사업 추진을 위한 사람들이 있음 •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함

Figure 3. Classification of depopulation village

하드웨어적인 마을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이나 생활시설 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를 가지고 마을의 하드웨어적인 여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마을의 주택들이 생활여건이 좋은지 아니면 노후되어 생활여건이 열악한지를 바탕으로 마을의 하드웨어적인 여건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소화마을 노후주택비율과 노령인구비율은 일본 한계마을의 기준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과반수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노령화 비율 50%와 하드웨어적인 주택노후도 비율 50% 기준을 바탕으로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과소화마을 유형별 현황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과소화마을 유형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과소화 마을 수는 총 3,091개 마을이며, A유형은 361개(11.7%), B유형은 578(18.7%), C유형 483개(15.6%)이며, D유형이 1,669개(54.0%)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과소화마을 비중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33.2%, 전라남도 25.2% 경상남도 10.4% 순으로 전라도 지역의 과소화마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8. Classification of regional depopulation village

구분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과소화 마을수
	65세 50% 이상, 노후 30년 이상	65세 50% 이상, 노후 30년 미만	65세 50% 미만, 노후 30년 이상	65세 50% 미만, 노후 30년 미만	
부산	0	0	3	13	16(0.5)
대구	2	4	3	10	19(0.6)
인천	1	3	1	3	8(0.3)
울산	2	0	3	12	17(0.5)
경기	4	16	18	110	148(4.8)
강원	13	9	14	78	114(3.7)
충북	26	47	28	157	258(8.3)
충남	12	33	25	88	158(5.1)
전북	85	183	152	607	1,027(33.2)
전남	142	132	163	343	780(25.2)
경북	26	65	34	98	223(7.2)
경남	48	86	39	149	322(10.4)
제주	0	0	0	1	1(0.0)
계	361(11.7)	578(18.7)	483(15.6)	1,669(54.0)	3,091

IV. 과소화마을 개선방안

1. 추진가능 사업현황

농어촌과소화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많이 있다. 이러한 농어촌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한다면 과소화마을 확대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마을에 적용가능한 사업들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리더 양성, 주민 교육 및 마을 사업 교육, 노년교육, 건강생활 프로그램, 마을상품 개발 등이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농어촌 체험시설, 마을경관 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마을기반정비, 노후주택·빈집 정비, 폐슬레이트 철거, 환경보존 시설지원,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과소화마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Figure 4. Rural village Program

2. 과소화마을 유형별 전문가 설문조사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유형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어촌 관련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의 사업별 중요도와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Table 9. Overview of survey experts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농어촌 관련 전문가 40명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연구원, 국민농업포럼 등)
주요 내용	- 유형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 사업별 중요도 (5점 척도)

유형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부분 아이템 중요도
각 유형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부분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유형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의 농어촌 정주여건 관련 개선 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해보았다.

전문가설문 분석 결과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의 사업으로 A유형은 건강생활 프로그램(82.5%), 노년교육(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B유형 역시 건강생활 프로그램(82.5%), 노년교육(72.5%)이 가장 높았다. C유형에서는 주민교육 및 마을 사업 교육(87.5%), 마을리더 양성(85%), 마을기획컨설팅(82.5%) 순이었으며, D유형에서는 마을리더 양성(82.5%), 주민 교육 및 마을 사업 교육(80.0%), 마을 상품 개발(77.5%), 마을기획 컨설팅(7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령화 비율이 높은 A,B유형에서는 건강생활프로그램과 노년교육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령화 비율이 낮은 C,D유형에서는 주민교육 및 마을리더 양성 등의 사업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Importance of the software sector by type
(Unit:%)

구 분	유형	1	2	3	4	5
마을기획컨설팅	A	5.0	12.5	20.0	25.0	37.5
	B	5.0	17.5	17.5	40.0	20.0
	C	7.5	0.0	10.0	27.5	55.0
	D	7.5	10.0	7.5	30.0	42.5
홍보마케팅	A	10.0	30.0	25.0	25.0	10.0
	B	5.0	27.5	35.0	22.5	10.0
	C	5.0	5.0	30.0	40.0	20.0
	D	5.0	2.5	40.0	37.5	12.5
마을리더 양성	A	10.0	10.0	17.5	30.0	30.0
	B	7.5	15.0	15.0	25.0	37.5
	C	7.5	2.5	5.0	32.5	52.5
	D	7.5	2.5	5.0	35.0	47.5
주민 교육 및 마을 사업 교육	A	7.5	10.0	35.0	25.0	22.5
	B	5.0	15.0	30.0	32.5	17.5
	C	7.5	2.5	2.5	45.0	42.5
	D	7.5	2.5	7.5	37.5	42.5
노년 교육	A	5.0	5.0	15.0	32.5	42.5
	B	7.5	12.5	7.5	27.5	45.0
	C	5.0	22.5	32.5	32.5	7.5
	D	5.0	15.0	45.0	25.0	7.5
건강생활 프로그램	A	7.5	2.5	7.5	42.5	40.0
	B	7.5	2.5	7.5	45.0	37.5
	C	5.0	15.0	27.5	45.0	7.5
	D	5.0	12.5	30.0	37.5	12.5
마을 상품 개발	A	7.5	25.0	27.5	20.0	17.5
	B	5.0	22.5	35.0	17.5	20.0
	C	7.5	2.5	10.0	45.0	35.0
	D	7.5	0.0	12.5	30.0	47.5

주: 1.전혀필요없음, 2.필요없음, 3.보통, 4.필요, 5.매우필요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부문의 사업으로는 A유형에서는 페슬레이트 철거(80.0%), 노후주택 빈집 정비(75.0%), 마을경관 조성(70.0%), 환경보

존 시설 지원(70.0%)로 나타났다. B유형에서는 생활 편의시설 조성(7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C유형에서는 페슬레이트 철거(85.0%), 환경보존 시설 지원(85.0%), 노후주택 빈집 정비(82.5%), 농작업 환경 개선(82.5), 마을경관 조성(77.5%), 생활 편의 시설 조성(77.5%), 마을 기반 정비(70.0%)로 나타났으며, D유형에서는 농작업 환경 개선(87.5%), 생활편의시설 조성(80.0%), 마을경관 조성(75.0%), 농어촌 체험시설(72.5%), 마을 기반 정비(70.0%), 환경보존 시설 지원(7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Importance of the hardware sector by type
(Unit:%)

구 분	유형	1	2	3	4	5
농어촌 체험시설	A	20.0	35.0	25.0	12.5	5.0
	B	17.5	27.5	35.0	12.5	5.0
	C	7.5	10.0	17.5	42.5	22.5
	D	7.5	5.0	12.5	40.0	32.5
마을경관 조성	A	7.5	7.5	12.5	45.0	25.0
	B	5.0	12.5	22.5	42.5	17.5
	C	5.0	7.5	10.0	47.5	30.0
	D	7.5	2.5	15.0	47.5	27.5
농작업 환경 개선	A	12.5	32.5	27.5	17.5	7.5
	B	10.0	25.0	45.0	12.5	7.5
	C	2.5	5.0	10.0	47.5	35.0
	D	5.0	2.5	5.0	52.5	35.0
마을 기반 정비	A	7.5	15.0	27.5	25.0	22.5
	B	5.0	10.0	40.0	27.5	17.5
	C	2.5	10.0	17.5	40.0	30.0
	D	7.5	2.5	20.0	45.0	25.0
노후주택 빈집 정비	A	5.0	5.0	12.5	20.0	55.0
	B	2.5	27.5	32.5	17.5	20.0
	C	5.0	0.0	12.5	32.5	50.0
	D	12.5	20.0	32.5	17.5	17.5
페슬레이트 철거	A	7.5	7.5	2.5	30.0	50.0
	B	5.0	20.0	17.5	30.0	27.5
	C	7.5	0.0	7.5	45.0	40.0
	D	10.0	7.5	25.0	25.0	32.5
환경보존 시설 지원	A	10.0	15.0	2.5	42.5	27.5
	B	7.5	12.5	17.5	40.0	22.5
	C	7.5	0.0	7.5	52.5	32.5
	D	7.5	5.0	17.5	40.0	30.0
임대 분양 주택 조성	A	10.0	22.5	17.5	25.0	22.5
	B	17.5	27.5	17.5	30.0	7.5
	C	7.5	15.0	37.5	25.0	15.0
	D	7.5	20.0	42.5	25.0	5.0
생활 편의 시설 조성	A	5.0	2.5	25.0	42.5	22.5
	B	2.5	7.5	20.0	52.5	17.5
	C	2.5	5.0	15.0	57.5	20.0
	D	2.5	7.5	10.0	57.5	22.5

주: 1.전혀필요없음, 2.필요없음, 3.보통, 4.필요, 5.매우필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A,C유형에서는 폐슬레이트 철거, 빈집정비, 환경보전 등의 사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B,D유형에서는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높게 나타났다.

3. 과소화 마을 유형별 추진전략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도 높은 유형인 공동홈형(A유형)은 과소화 정도가 계속적으로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마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단계적인 출구전략 마련 필요하다.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유형인 귀농유도형(B유형)은 귀농인 등의 젊은층 유입을 장려하는 사업이 필요함. 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통하여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유형인 소규모 농촌 임대주택형(C유형)의 경우 마을 인프라 여건이 열악함으로 하드웨어 중심사업으로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후주택비율도 낮고, 노령인구 비율도 낮은 유형인 적극지원형(D유형)은 과소화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과소화마을의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집중이 필요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과소화 유형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별화된 추진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Figure 5. Strategy type depopulation village

4. 과소화마을 유형별 적용 사업

노령인구가 많은 A유형과 B유형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통한 과소화 마을 해결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A유형과 C유형의 경우 마을 인

프라 여건이 열악하여 노후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빈 집정비사업 등의 하드웨어 중심사업으로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후주택비율도 낮고, 노령인구 비율도 낮은 D유형은 과소화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유형으로, 마을리더 양성,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Figure 6. Type of depopulation village program

노인인구가 많고 노후주택이 많은 A유형은 공동홈형으로 과소화마을 단계적 출구전략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과소화마을 유형중 여건이 가장 나쁜 유형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과소화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이 불가피한 마을로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⁴⁾.

이러한 지역을 위한 거주자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보다는 겨울철 등 동절기에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홈을 활용해서 겨울철 등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소화마을 공동홈 조성(안) 과소화마을 연계 공동홈 조성(안)

Figure 7. Utilization of depopulation village group home

이러한 공동홈은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주거공간 개념을 도하여 기존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부엌, 식당 등 일부 공용공간을 활용하면서 공동 거주하도록 물리적·기능적 연계하여 조성한다. 기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시설을 연계·확장하여 소규모(5~10호)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다.

Figure 8. Utilization of a group home of the town hall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이 적은 B유형의 경우 귀농 유도형으로 귀농인 등 젊은층 유입 정책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선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젊은 귀농·귀촌인의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나 밭을 확보하고 마을의 기존주택을 개보수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가능한 활용형과 개선이 불가능한 제거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슬럼화되어 활용 불가능한 빈집은 제거해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형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해서 젊은 사람들을 마을에 유치하거나 숙박시설,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해서 마을소득사업을 위해 활용 가능할 것이다.

Figure 9. Utilization of Vacant house for return farmer

Table 12. Type of vacant house

구분	내용
활용형	- 빈집을 개보수 하여 귀농, 귀촌자들에게 제공 - 빈집을 숙박시설,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개보수
제거형	- 개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제거

노령인구는 적으나, 노후주택이 많은 C유형의 마을은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정책 마련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은 4-10호 내외의 소규모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 색깔있는 마을사업 등의 사업추진시 과소화 마을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노령인구가 적고, 노후주택 역시 적은 D유형은 과소화마을 중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마을로서 B,C유형에 적용된 사업들을 활용하여 가장 적극적인 과소화마을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V. 결 론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농어촌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어촌 주택의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방지 및 과소화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도별 농어촌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마을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과소화마을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소화마을의 축소 및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과소화마을의 유형분류는 노령화와 주택 노후도를 통하여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고 유형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소화마을을 위한 유형별 정책방안으로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관련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하여 과소화마을 유형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 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마을들을 연계하여 공동체 기능 확충 방안 등의 노력을 강구하

고 인접 농어촌 과소화마을을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문화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급 효율적이다.

하지만, 과소화 마을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정책제안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 및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한 유형분류와 정책방안이 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추후 이른 토대로한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한 과소화마을의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책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이고 시사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문제 심화는 농어촌의 어메니티 보전과 활용,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농어촌 정책, 귀농·귀촌 장려 등과 같은 최근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농어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연구가 지속되어 농어촌주민들의 불편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 농어촌거주 주민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시거주민을 유인함으로써 지속성있고 안정적인 농어촌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농어촌 과소화마을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매우 다양한 마을의 여건을 주택노후도와 노령비율로 단순화시켜 유형분류를 했다는 점과 마을의 동태적 여건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과소화마을의 동태적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기존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사생활과 공동체생활이 동시에 보장되는 주거유형으로, 방 1칸 단독 선호비율(50%)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1. 강대구, 2009, 귀농, 귀촌의 현황과 과제, Paper presented at the 귀농·귀촌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2. 김근성, 2012,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양포마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0(3): 47-59.
 3. 김득희, 황경열, 1998,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 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1권: 95-126.
 4. 김성원, 2009, 귀농 귀촌 종합대책, Paper presented at the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대응방안 토론회, 전라북도청.
 5. 김소희, 2009,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117-142.
 6. 김정섭, 2009, 귀농, 귀촌에 대응한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역할, Paper presented at the 귀농·귀촌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7. 김창현 외, 2008,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국토연구원.
 8. 문승태, 2008, 농촌주민들의 영농 유형 및 규모와 생활 만족도와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4): 145-163.
 9. 박덕병 외, 2006,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농촌계획.
 10. 박순미,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통권 47: 137-160.
 11. 박윤호,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수립지침개발연구(1),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2. 박진도외, 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13. 배연정 외, 2013, 농촌마을 정주환경분석을 통한 과소화마을 입계규모 결정지표 개발, 농촌계획 19(1): 109-122.
 14. 손상락, 2011, 2010 주거실태조사로 본 도시민의 은퇴후 주거선택 의향과 정책제언, 경남발전연구원.
 15. 송미령, 박주영, 2004,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
- 주1) 정기환 외,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정기간 외, 농촌경제연구원, 1999, pp.6~7.
- 주2) 정기환 외,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정기간 외, 농촌경제연구원, 1999, pp.12~13.
- 주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로의 이동에 비해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높아지고, 2011년에는 수도권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인구비율(도시화율)은 2012년 91.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1960년 조사된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귀농인구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도시인구 유입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가구의 경우 2001년 880가구에서 2012년 27,000가구로 급증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이에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매년 3만 가구의 지원대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대책이 성과를 거둔다면, 농촌인구 감소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4) 현재 농촌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동거주제로는 ‘노인공동홈’이 있다. 노인공동홈은 농촌 고령자의 생활비절감과 독거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오승환,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시·농촌·어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연구 2006 여름호 통권 21호: 119-147.
17. 이민수 외, 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18. 이성근, 정시희, 2008,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3(2): 13-36.
19. 이성우, 2006,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농촌연구센터 제155회 정기월례세미나주제발표논문.
20. 이수행, 김군수, 2011, 경기 신농정 패러다임,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1. 이장영, 2009, 도시와 농촌의 여가와 생활 만족도 비교, 사회과학연구 통권 21호:113-132.
22. 이정환 외, 1990,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이창우, 2013, 농어촌 과소화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발전연구원.
24. 정기환 외,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농촌경제연구원.
25. 정현숙, 2010, 미혼남성농업인의 생활특성과 농촌생활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30.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7. 황홍도, 1991, 경남낙후농촌지역의 개발전략,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8. 황홍도, 이동현, 2007, 낙후농촌정주권개발을 위한 농촌정주생활여건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41(4):79-89.
29. Chang-Woo, Lee, Nam-Seok, Ji, 2013.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 for Rural Activ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3):169-182.
30. Joon-Beom, Cho, 2009. The Study on the Over-de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Village Unit in Rural and Fishery Region: Focused on Jangheung-Gun, Jeannam-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1(3): 163-182.
31. Ki-Whan, Chung, 1999, The Problems and Classification of Over-Depopulation Areas in Rural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2. Nam-Seok, Ji, Byung-Ho, Lim, 2013, Analysis of the Comparison and the Correlation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Rental Housing Type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8(4): 33-51.
33. Nam-Seok, Ji, Chang-Woo, Lee, 2013. 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ettlement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Rural Resi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55-71.
34. Yoon-Ji, Choi, Jeong-Im, Hwang, 2010.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Servic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17(4): 685-216.
35. Young Jae, Cho, Eun Jung, Cho, 2012. A Study on the Settlement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Sub-Urban Residential Complex,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8(2): 13-26.
36. <http://kostat.go.kr>
37. <http://www.mafra.go.kr>

접 수 일: (2014년 3월 12일)

수 정 일: (1차: 2014년 6월 2일, 2차: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2일)

■ 3인 익명 심사필